

유방암 ① - 원인, 증상, 진단

통증없는 멍을 ... 본인 자가진단 중요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발생 빈도가 낮으나 최근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의 경우 전체 여성암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40대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유방암은 유방 내에 통증없는 멍을 생기는데 본인 스스로의 자가진단이 중요하다.

전체 여성암의 14.7%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즉 1970년대 이래 계속 증가하여 1984, 85년에는 전체 여성암 발생건수에서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8.7%였으나, 1999년에는 14.7%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시킬 수 있는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신체 장애를 극소화하면서 생존율을 증대시킴으로써, 환자가 정신적으로,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의 특징은 미국이나 유럽 여성들보다는 아직 발생 빈도가 낮으나(예로 미국은 성인 여성 인구의 8명중 1명이 일생중 유방암에 걸려 여성암 중 제1의 발생 빈도를 가짐, 일명 1/8 병)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평균적으로 47.4세), 30대, 50대순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서구에서는 50대(평균 54.1세), 60대순으로 발병하고 있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유방암의 발생 빈도는 경제 수준과 생활습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고지방, 고단백 등으로 고칼로리의 음식을 섭취하고, 호르몬제(25세 미만의 1500mg 이상의 피임약 복용과 폐경 이후의 부적절한 호르몬 대체요법(HRT)등)을 많이 사용하는 선진국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고, 채식 등으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아이를 낳는 횟수가 많으며, 모유로 아이를 키우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발생 빈도가 낮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의 변화(서구화)가 유방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어쨌든 유방암의 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가지 인자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 열거한 이유를 포함하여 유방암의 99%가 여성에게 발생하는 사실로 보아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여성 호르몬 3가지(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및 에스트리올)중 에스트라디올 및

에스트론이 문제시되고 있고 에스트리올은 오히려 유방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어머니나 여자 형제중 유방암이 있으면 2~4배 정도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므로 보통 사람들 보다 젊은 나이에서부터 자주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만혼으로 늦게까지 아이를 갖지 않는 것도 위험요소(약 3~4배)로,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혼자 사는 경우나, 수녀들에게 유방암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이야기다.

유방암의 원인 중 최근 유전자 17번에 있는 유방암 억제 유전자 BRCA1의 결함으로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즉 유전적 유방암의 50%가 이 BRCA1 유방암 발생 억제 유전자의 결함에 있다. 즉 17번 유전자 1개가 결함이 있을 때 이 여성들의 70%는 60세가 되면 유방암에 걸리고, 70세가 되면 63%가 자궁암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 유타대학 Dr. Mark Skoienick). 최근 BRCA1과 또한 BRCA2(chromosome 13q12-13)가 발견되어 BRCA2의 결함이 생기면 유방암 발생이 젊은 나이에 나타나며 남자의 유방암을 유발하는 경향도 있다고 알려졌다(Wooster, 1994). 현대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직장생활 등 사회 참여도가 높아 모유를 먹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모유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고, 또한 아이의 건강에도 훨씬 유리하다. 또한 유방암은 체격이 큰 여성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으나 같은 체중이라도 상체가 크고 하체가 약한 체형에서 위험도가 높고(2~3배) 상체에 비해 하체가 발달

한 체형은 위험도가 정상인과 같다.

여성 호르몬이 주요 원인

유방암의 원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한가지 인자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들을 보면 • 유방암의 99%가 여성에서 발생하는 사실로 보아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실험적으로 3가지 여성 호르몬중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론이 문제가 되며 에스트리올은 오히려 유방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전체 유방암의 1%는 남성에서 발생한다). 어머니나 여자 형제중 유방암이 있으면 2~4배의 발생 빈도를 가지며 평생 36개월 이상 젖을 먹인 부인이나 40세 이전에 난소적출술을 받은 여자는 유방암 발생률이 1/4로 떨어진다. 고칼로리, 고지방 및 고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유방암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cH-ras), BRCA1, BRCA2의 결함이 있는 사람, 서른살까지 임신해 보지 못한 여자(외국에서는 수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25세 이하의 나이에서 혹은 첫 분만 전에 피임약을 다량(1500mg 이상) 복용하는 경우, 초경(첫 생리)이 빨랐고 폐경이 늦고, 비만한 여자에서 발생률이 높다. 최근 재미있는 사실은 프랑스의 C. Jasmin(1990년)은 정신적 문제와 유방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존심 내지 아집(excess self-esteem)이 심하거나 히스테리가 심한 여자에서 보통 여자보다 유방암 발생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유두출혈, 유두침몰 등 증상

유방암의 가장 흔한 첫 소견은 유방

내 만져지는 통증이 없는 멍울이다. 암의 멍울은 양성인 것과 감촉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양성인 경우는 멍울의 경계가 분명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감촉이 부드럽고 잘 움직인다. 그러나 악성인 경우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지며, 침윤이 심하면 뿌리가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밖에 유두 출혈, 유두 침몰, 액와부(겨드랑이)의 임파선 종대 등이 있으며,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고 피부 부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유두부의 피부 껍 벗어(Paget씨병)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유방에서 혹이 만져지기 전에 뼈, 간, 폐 등의 전이(암세포가 전파된 것) 소견, 즉 뼈의 통증, 황달 또는 마른 기침 혹은 객혈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유방암의 전이 빈도는 뼈, 폐, 간, 뇌 및 난소 순서이다.

피부색 변화 ... 전문의 찾아야

유방암의 진단은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가진단이 중요하다. 즉 목욕 중 비눗물을 바르고 자기 유방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만져서 멍울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피부색의 변화, 유두 침몰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배개를 어깨 밑에 넣고 다시 한번 양쪽 유방에 멍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이상이 발견되거나 브레지어에 진물이나 핏자국 등이 묻어 있으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보면 경험있는 의사는 70% 정도를 진단할 수 있고 이것을 유방특수촬영술(mammography, xeromammography), 세침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유관내시경검사, 조직검사(biopsy) 등으로 확진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촬영(CT), 자기공명사진(MRI) 및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암세포의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T-scan 등도 유방암의 진단 및 유방암의 전이를 진단할 수 있으나 CT, MRI, PET는 너무 비싸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할 것 같다. 종양표지인자(CEA, CA15-3) 등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실은 진단보다 재발을 예측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Mammography의 유방암 진단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85~90%가 되나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작고 특히 젊은 여자에서는 과밀도 유방실질 때문에 진단율이 떨어지므로(45~65%) 세침세포검사 등이 도움이 된다(70~85%). 특히 임신중인 유방종양의 진단은 세침세포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검사는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값도 비싸고 더 중요한 것은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신중 유방암 진단은 세침세포검사를 권하고 싶다. Xeromammography는 mammography 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Thermography나 초음파검사법은 유방암을 진단하는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나 초음파검사로서는 위치를 알아내고 종양이 낭성(cyst)인지 고형성(solid)인지 구분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최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법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CT나 MRI로도 찾아낼수 없는 암 재발 부위 등을 진단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암 조기진단 목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⑤7

(다음호에 계속)

白南善 <원자력병원 외과과장>